

보도시점 : 2024. 7. 22.(월) 11:00 이후(7. 23.(화) 조간) / 배포 : 2024. 7. 22.(월)

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, 24일부터 순차 개통

- 충남 서천·부여, 충북 청주·증평 21km 개통... 교통정체 해소, 안전성 제고 기대

□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(국도 21, 29)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(국도 29)하며,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(국도 36)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일반국도 21호선,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,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,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.


* 7월 24일 낮 12시 개통 : 충남 서천 마서면 송내리~화양면 옥포리 8.1km (국도 21, 29)
충남 부여 임천면 비정리~만사리 2.6km (국도 29)
7월 25일 낮 12시 개통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~증평군 도안면 10.5km (국도 36)

○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'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, 총 사업비는 2,820억원이 투입되었다.

□ 먼저, 국도21·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,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사업 개요	전경
(사업명) 국립생태원-동서천IC 건설공사 (위치)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~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(개통) 송내교차로~동서천C 8.1km 확장 (사업비) 855억원 (기간) 2017. 07. ~ 2024. 07.	

○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사업개요	전경
(사업명) 장암-임천 도로건설공사 (위치)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~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(개통) L=2.6km, 2차로 시설개량 (사업비) 122억원 (기간) 2017. 07. ~ 2024. 07.	

○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(국도 36)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청주~증평 구간 **통행시간 단축효과** (19분 → 7분, 12분 ↓)

사업개요	전경
(사업명) 충청내륙고속화(1-1) 도로건설 (위치)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~ 증평군 도안면 (개통) 북이교차로~도당교차로 10.5km, 4차로 신설 (사업비) 1,843억원 (기간) 2017. 05. ~ 2024. 07.	

□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“앞으로도 도로 지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송명근	(044-201-4768)
<협조>	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	책임자	과 장	류재원	(042-670-3510)
		담당자	주무관	김영범	(042-670-3522)
<협조>	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	책임자	과 장	이호준	(042-670-3550)
		담당자	주무관	이원종	(042-670-3565)